

최소실책 1위·부상자 제로 ‘수확’...장타력 확보는 숙제

KIA 타이거즈가 4승 6패 2무로 2026KBO리그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10개구단 중 9위에 그쳤지만 부상자가 없었고 실책도 가장 적었다는 점, 선수들의 성장을 확인했다는 점은 성과다.

KIA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다. 울러가 4이닝 무실점으로 구위를 점검했고 한동안 등판이 없었던 정해영이 1이닝을 맡아 실전준비를 마쳤다.

4승 6패 2무 최종 순위 9위라는 걸로 드러난 성적만 보면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지만 세부 지표와 전력 변화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비 안정, 선수층 성장, 주전들의 몸상태 회복이라는 뚜렷한 성과가 확인된 반면에 시즌 초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득점권 집중력 강화, 장타력 확보, 안정적인 타격 흐름 유지가 중요 과제로 남았다. 공격 효율과 타선 구성의 최적화가 시즌 성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성과는 수비다. 비시즌 동안 집중적으로 수비 훈련을 진행했던 KIA는 12경기에서 단 3개의 실책만 기록하며 최소실책 1위에 올랐다. 지난 두 시즌 연속 리그 최다 실책이라는 오명을 썼던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는 8경기 8실책,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2024년에는 시범경기 10경기 12실책을 기록했던 흐름과 비교해도 안정감이 뚜렷하다.

주전 선수들의 건강한 복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다. 지난 시즌 대부분을 결장했던 김도영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와 시범경기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정을 병행하면서도 시범 경기 타율 0.364(11타수 4안타)를 기록, 안정적인 타격감을 유지했다. 나성범 역시 부상 우려를 털어내고 실전에서 장타를 생산, 타율 0.381(21타수 8안타)로 견제함을 알렸다. 주축 타자들이 개막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시즌 초반 팀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내야진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 받았던 윤도현과 오선우는 전지훈련 기간 동안 꾸준한 훈련을 소화하며 타격은 물론, 수비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기존 수비형 자원으로 평가 받았던 박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4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6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시범경기를 마친 KIA는 28일 인천에서 SSG와 개막전을 갖는다. KIA 제공

민과 정현장이 공격에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팀 내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박민과 정현장은 시범경기에서 각각 0.361(36타수 13안타), 0.333(21타수 7안타)의 타율을 기록했고, 김호령 역시 타율 0.364(33타수 12안타)를 기록했고 2루타 2개를 생산하는 등 공격 기여도를 끌어올렸다.

내야 자원들이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경기 상황과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라인업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마운드에서는 경쟁과 템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됐다.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활동하는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며 선발 후보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활동하는 지난 22일 두산과의 시범경기 선발 등판해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KIA 시범경기 본 성과·과제

4승 6패 2무 9위 마무리 아쉽지만 수비·선수층 성장 등 운영 안정감 득점권 집중력·공격 효율 높여야

김태형은 시범경기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2.60을 기록했지만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 속에 성장 가능성을 남겼다. 특히 불넷을 즐기고 공격적인 승부를 이어가려는 모습은 긍정적인 변화다.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이 5선발로 낙점되더라도 다른 한 명을 통릴리프나 대체 선발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긴 시즌을 고려

한 유연한 마운드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제구 불안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이의리도 토종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줄 자원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의리는 시범경기 1경기에서 4이닝 4탈삼진 무실점으로 안정된 제구와 효율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첫 실전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불펜 역시 지난 시즌과 비교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범수의 합류로 전력이 보강됐고 기존 자원들과의 경쟁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홍건희, 이태양, 조상우 등 경험있는 투수들과 젊은 자원들이 함께 경쟁하면서 전체적인 템스는 두터워진 모습이다.

반면 과제도 분명하다. 시범경기는 실험과 점검이 우선시되는 일정이지만 단 4승에 그친 성적은 아쉬움을 남긴다. 경기 내용에서 흐름을 끝

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완성도 부족이 드러났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타선 생산 능력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팀 공격 지표에서는 타율은 0.249로 10개 구단 중 8위, 장타율은 0.383으로 8위에 머물렀고 출루율은 0.322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공격 지표가 하위권에 위치하면서 득점력과 장타력 확보가 시즌 대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 데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0경기에 출전해 타율 0.129(31타수 4안타) OPS 0.285에 그쳤다.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장타 생산력과 출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팀 타선의 활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테스트는 끝났다. KIA는 28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로 2026시즌을 연다. 홈 개막은 4월 3일 NC 다이노스전이다. **조혜원 기자**

프로야구 시범경기 관중 44만명 ‘역대 최다’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에 역대 최다 관중이 들어왔다.

KBO는 “24일까지 진행된 2026 신한 SOL KBO리그 시범경기 총 44만247명(60경기)이 입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인 지난해 32만 1,763명(42경기)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관중수다.

시범경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평일 낮 경기였지만 대구에 1만44명, 대전에 9,116명 등 많은 팬이 야구장을 찾았다.

또 올해 시범경기는 우천 취소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범경기 평균 최다 관중 기록은 여전히 지난해 7,661명이다.

올해 경기당 관중 수는 7,33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경기도 이천, 경남 창원 마산구장 등 작년에 시범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곳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이천은 500명, 마산구장은 280명씩 입장한 가운데 시범경기가 열렸다.

정규시즌은 28일 kt-LG(잠실), KIA-SSG(인천), 롯데-삼성(대구), 두산-NC(창원), 키움-한화(대전) 경기로 개막한다. **연합뉴스**

전남도청 김민수,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 1위

산타 -60kg급 AG 출전권 획득 장민규, 태극권 전능 태극마크

전남도청 김민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민수는 전남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수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산타 -60kg급에서 1위를 차지해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민수는 준결승에서 권혁(서울시설공단)을 2-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는 강희준(충북 비룡관)을 2-1로 꺾고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민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동메달을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금메달로 만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혜원 기자**

전남도청 장민규는 선발전 태극권 전능에서 안현기(충북개발공사)에 이어 2위를 기록, 태극마크를 달았다. 단, 아시안 게임은 예비선수다.

김민수와 장민규는 다음달 초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국가대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병용 전남도우수협회장은 “전남 우수 역사상 투로와 산타 선수가 동시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의 체계적인 훈련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체육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수들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혜원 기자**



김민수



무등BC가 23일 제13회 대신육가공 대표이사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전에서 우승, 8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선발됐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무등BC, 8년 만에 소년체전 광주 대표 선발

대신육가공배 우승...MVP 이권율

무등BC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 중등부 광주 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2018년 제47회 소년체전 이후 8년만의 쾌거다.

무등BC는 16일부터 23일까지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대신육가공 대표이사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전 결승에서 광산구BC를 7-1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광산구BC, 충장BC, 진흥중, 무등BC, 동성중 등 광주 지역 5개 팀이 참가해

플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무등BC는 대회 첫날 휴식을 취한 뒤, 둘째 날 열린 경기에서 충장BC를 상대로 4-3 승리를 거두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셋째 날 경기에서 진흥중을 3-2로 제압했고, 넷째 날에는 동성중을 6-0으로 완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지막 날 열린 경기에서는 광산구BC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전 경기 승리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무등BC 이권율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이권율은 15타석 12타수 4안

타 2타점 1홈런을 기록했다. 조준수는 우수투수상, 오중현은 미기상을 각각 받았다. 김성일 감독은 감독상을, 최재현 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준우승팀 충장BC는 최다홈런상(이연승·1개), 타격상(황도연·10타수 7안타), 최다도루상(이대호·7개), 최다타점상(김태건), 감투상(하성웅)을 받았다.

한편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2026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대학배구 U-리그 오늘 개막...7개월 레이스

조선대·호남대 남자부 조별리그

한국 남자배구 차세대 간판으로 꼽히는 윤경(20·인하대)이 참가하는 2026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가 25일 막을 올려 7개

월간의 레이스에 들어간다.

올해 U-리그에는 남자부 15개 팀, 여자부 6개 팀 등 총 21개 팀이 참가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리그전을 펼친다.

지난해 윤경을 앞세워 U-리그 우승을 차지한

인하대는 성균관대, 흥익대, 경희대, 명지대, 경일대, 호남대와 A조에 묶여 조별리그를 치른다. B조에는 경기대와 한양대, 중부대, 조선대, 국립목포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우석대가 편성됐다.

여자 대학부에선 경일대와 광주여대, 단국대, 목포과학대, 우석대, 호남대가 단일 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